

# 혁명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2월 18일(화)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 멈추지 말고 노동자 독자정치를 향해 전진하자!

내일이 투표일이다. 이미 스스로 투쟁과 정치의 주제로 서기로 결심한 동지들은 물론이고, '선투본'(김소연 후보)에 대한 동의를 떠나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동지들이라면 이번엔 기꺼이 투표장에 나가자.

### 김소연 후보에게 표를 찍자!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실패와 파산을 딛고, 야권연대/정권교체를 넘어 노동자 독자 정치를 새롭게 일구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동지들이라면 투표장에 가서 김소연 후보에게 투표하자. '선투본'이 제시한 '대선투쟁강령', '선투본'이 전개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을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여!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대선 기간 동안 끈끈하게 선거투쟁을 펼쳐온 '선투본'과 김소연 후보를 격려하고자 하는 동지들이여! 모두 기호 5번 김소연 후보에게 표를 찍자. '선투본'이 잘못된 것, 하지 못한 것을 가차 없이 비판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하면 된다.

'세상을 뒤엎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르주아 정치 아래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제법 커다란 변화조차도 실은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과 권력에 맞서 공장과 거리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억압과 착취,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주체의 직접행동만이 세상을 조금씩이든 한꺼번에든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선거투쟁은 이러한 직접행동과 대중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배치되는 투쟁이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투표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계속되어야 한다.

### 박근혜를 두려워 할 필요도, 문재인에게 기대할 것도 없다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하다. 위기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수습되거나 종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첫째다. 그와는 반대로 현 단면에서의 계급역학만 놓고 보면 위기가 매우 복잡하게 더욱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 노동자계급의 투쟁역량과 정치역량이 좀 더 컸더라면 현재의 위기가 보다 분명한 형태로 드러났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위기 전개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금의 위기는 이제까지보다 더 격렬한 형태의 정치변동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지배계급 내부의 정권교체만으로 위기를 수습하거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억압, 제어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 내부의 정권교체를 넘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자본과 노동 간의 거대한 계급투쟁이 터져나오는 정세가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

한국의 지난 15년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잃어버린 15년'이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10년 동안 벌어진 '민주/개혁' 국면은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유연화'가 전면화 된 시기다. 이명박정권 5년은 노동자에게는 노조탄압, 노동기본권이 87년 이전의 상황으로 후퇴한 시기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결코 박정희, 전두환정권의 후예가 아니다. 이명박정권은 분명히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연속이자, 연장이다. 이명박정권 아래에서 벌어진 노조탄압과 노동기본권 후퇴는 민주화 이전 정세 아래에서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민주정권' 10년 동안 축적한 '반노동'을 더욱 강력하게 계승한 것이다. '민주정권' 10년은 알다시피 결코 '친노동'인 적이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지난 15년은 노동자계급에게는 노동자 독자 정치 세력화가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볼 때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정당은 이번 대선정국을 '진보/민주/개혁' 세력 대 '유신독재 잔재' 세력 사이의 싸움으로 몰고 갔다. 차라리 지배계급이 말하는 보수 대 진보 세력 사이의 진영 싸움('보혁대결')이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반노동자적인 정세 규정이다. 후자의 경우는 비록 보수정당일 뿐인 민주당을 진보라고 말하는 문제가 있지만 박근혜에 대해서는 민주화 이후의 보수라고 하는 점에서 맞다. 박근혜는 민주화 이전의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질서가 형성된 아래에서의 보수세력을 대표한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부르주아 계급의 일 분파임을 감추고자 자신을 '진보/민주/개혁'이라고 거짓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치장할 수 있도록 진보정당, 진보세력, 민주노총이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개량주의자들만이 아니다. '좌파' 일부에서도 정세인식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록 보수양당이기는 하지만 그들 사이에 차이가 없지 않다.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 차이가 노동자계급에게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반노동적일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이 결코 '친노동'이 아니라는 것은 오히려 더 확실하다. 따라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문재인이 당선된다고 해서 거기에 기

대할 바도 없다. 사실이 이토록 명백함에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정서가 있다고 해서(사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민족주의/민중주의/개량주의 세력들의 선동 앞에 노동대중을 방치하는 것은 '좌파' 자신이 그들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 정세의 성격을 계급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아서다.

### 노동자 독자정치는 노동자혁명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은 지난 15년에 걸친 투쟁과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새롭게 노동자 독자정치를 일구는 길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 독자정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하나는 지난 15년에 걸쳐 이루어진 '진보정당', '진보정치'를 다시 고쳐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 '노동자중심의 진정한 진보정당'은 전혀 고려할 가치도 없다. 먼저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중심'이란 것이 실은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즉 부르주아 정치체제를 전제한 아래에서의 그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를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개별화, 파편화된 한낱 유권자로서의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진정한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 기존 진보정당이 진정한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의 정체성, 즉 '진보'의 노선과 이념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독자정치를 실현할 수 없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 것이다.

또 하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정치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그 때의 노동자 독자정당은 필연적으로 노동자혁명당을 지향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진보정당과 노동자계급정당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진보정당이 끊임 없이 자본가정당과의 사이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듯이 노동자계급정당 또한 진보정당과의 사이에서 정체성을 잃고 진보정당에 대한 압력단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혁명당을 지금 당장 노동자계급정당과 별개의, 또 다른 무엇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 즉 노동자계급정당을 노동자혁명당이 아직 아닌, 예컨대 '전투적 노동자당' 정도로 제한, 하향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태를 불러올 뿐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자계급정당과 노동자혁명당 사이에 그 어떤 단계를 두거나 만리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당면한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투쟁은 노동자혁명당 창건으로 귀결될 때에만 성공할 수 있다. **혁명**